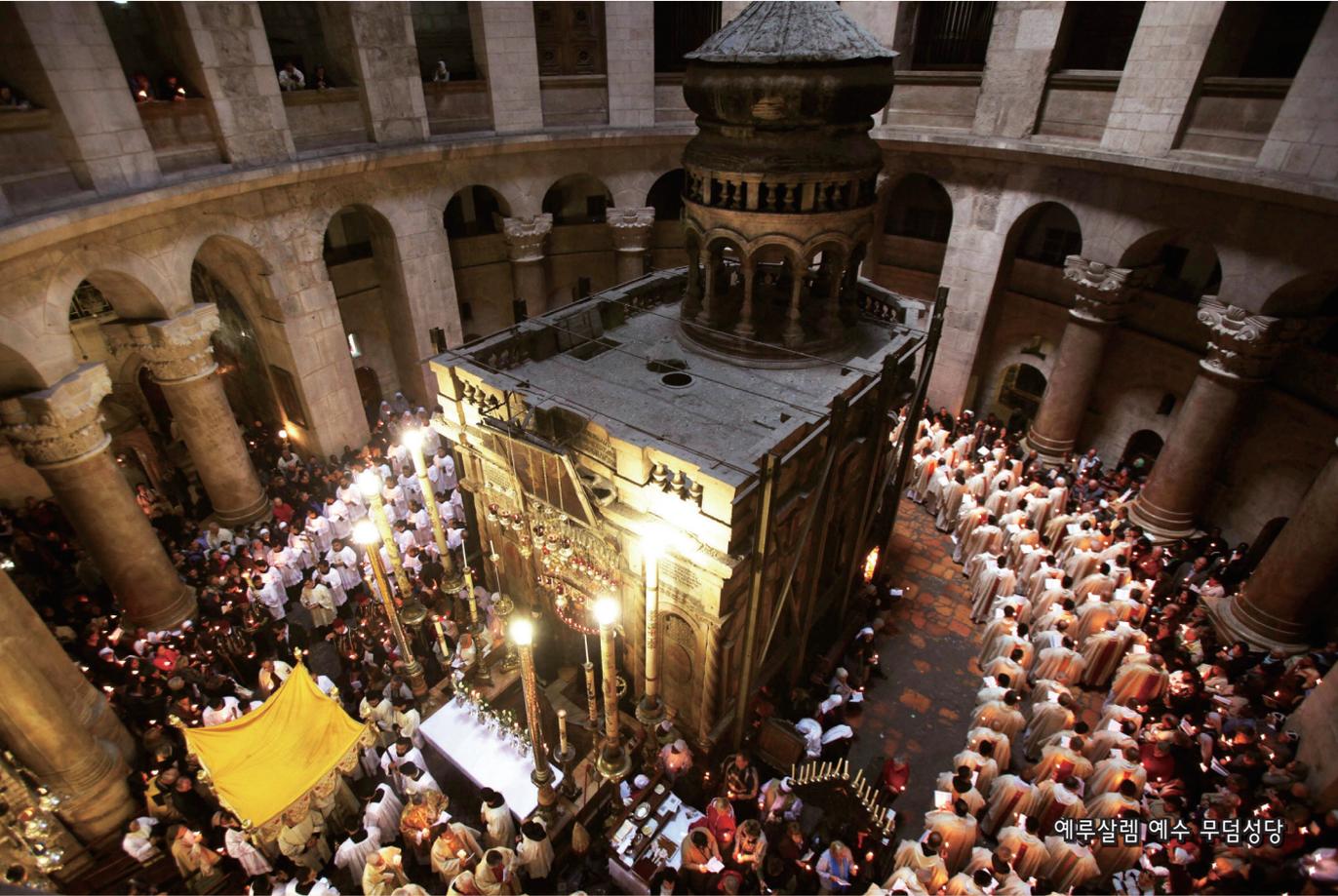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예루살렘 예수 무덤성당

## † 오늘의 전례

**예수님께서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주셨다.**(요한 21,1-19 참조)

제자들은 호숫가에 서 계신 주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후, 바로 이 호수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하고는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나누어주시자 모두가 주님을 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 뵙습니까?

**제1독서** 사도 5,27ㄴ-32,40ㄴ-41

**제2독서** 묵시 5,11-14

**복음** 요한 21,1-19

**입당송**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영성체송**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먹어라.” 하시며,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셨네. 알렐루야.



# “사람은 낚지 않고, 물고기만 낚네.”



최석환 요셉 신부 | 대신학원

오늘 복음은 갈릴래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부활 발현 사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물음이 불현듯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하필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을까?’ ‘어떤 연유로 그러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시금 깨우쳐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당신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말씀과 기적으로 여러 차례 일러주셨고, 그것도 모자라 몸소 십자가 죽음으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신신당부했건만, 제자들은 오히려 부름받기 전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다시금 ‘고기 잡는 어부’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이나 거듭 물으셨고, 그의 대답에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는 말씀까지 덧붙이셨습니다. 바로 사람을 낚아야 함이 그들을 부른 소명임을 깨달을 기회를 제자들에게 다시금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한편으로는 한심하셨겠지만, 풀 죽어 낙담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측은해 하지 않으셨을까요? “허, 참... 사람은 커녕 고기도 못 잡으니, 쫓쫓...”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 보거라.” “많이 잡히느냐? 그

래, 내가 아침식사 준비해 났으니 와서 빵을 먹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물고기를 이리 가져 오너라. 내가 직접 구워줄 터이니... 많이 힘들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대로 진정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달라집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아 죽음에 이르기 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 바로 사람을 낚는 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부활과 함께 한 그 ‘일상’은 또 다른 파견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매년 부활 시기를 보내면서도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을 모를 때처럼 ‘일상’을 ‘헛된 것들로 채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바른 신앙의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부활의 사도가 되기는커녕(‘사람은 낚지 않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만을 쫓아 사는 자로 늘 그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물고기만 낚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도 당신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며(말씀의 전례) 여전히 밥상을 차려주고(성찬의 전례)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따스한 위로와 깨우침의 기회’가 있는 부활 체험의 장소입니다.” **필문**

##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

지난 회에서 전례가 무엇인가에 대한 공의회 of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요강은 전례가 단순한 의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 활동을 지금 이 자리에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 전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의 은총으로 신비롭게 예수님께 결합되어 있는 모든 신자들은 대사이신 예수님께서 바치시는 제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례는 성직자이건 평신도이건 모두를 포함하는 교회 전체의 공적인 행위입니다(전례현장 26). 신자들은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스스로 제물이 되고 제관이 되어 예수님의 지체임을 드러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 신자가 능동적으로 완전히 참여하는 전례

전례현장은 신자들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무려 열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능동적인 참여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사제직에 합당한 내적인 준비입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러 하느님 앞에 나아간

다는 것,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속죄하고 기도하며 하느님께 은총을 청한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은총 지위에 있지 않다면 통회와 고해를 통해 하느님 대전에 나아갈 차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전례의 요소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공부하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환호, 찬송, 침묵과 같은 동작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전례현장 30). 또한 알아들은 의미에 걸맞게 전례의 다양한 표현에 마음을 싣고, 육신의 여러 기능을 동원하여 참가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신부님들이 하셔야 할 일도 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목자들은 “전례의 정신과 힘에 완전히 젖어들고 전례의 스승이 되어야”(전례현장 14) 합니다. 신부님들은 직무적인 사제 직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전례 가운데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인성을 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만, 또한 신자들이 자기들의 사제직을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교육해야 할 책임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신앙의 해 교리 퀴즈 ②



하느님의 계시는 주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에게 맡겨졌고, 사도들은 성령의 감도에 따라 그것을 두 가지 전달 양식을 통해 후대에 전하였습니다. 동일한 원천에서 나와 서로 긴밀히 결합하여 신앙의 유산을 형성하는 이 계시의 두 전달 양식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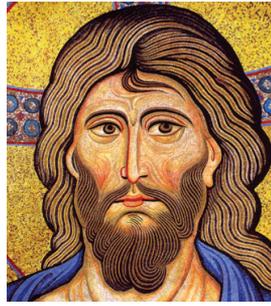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완전히 ( ) 하였고, 그분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계약을 세우셨다. 그 아들이 바로 성부의 결정적인 말씀이시므로, 그분 이후에 더 이상 다른 ( ) 는 없다.” (가톨릭교회교리서 73항)

## 천지의 창조주

문화홍보실

세상 사물은 있다가 없다가 하는 무상한 것입니다. 산이나 바다도 수십억 년 전에는 없었고, 장차 또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영원히 계시고, 스스로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



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있다 없다 하는 무상한 이 모든 것들을 존재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재료나 도구가 필요 없으신 하느님께서 오직 당신의 뜻과 말씀만으로, 아무 것도 없는 데서부터 만물을 지으십니다. 눈에 보이는 물체들뿐 아니라 형체가 없는 시간이나 공간, 우주의 모든 법칙, 사람의 영혼이나 천사들도 하느님께서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 나를 살리시는 아버지

세상을 살다 보면 큰 은혜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고민할 때, 또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때 곁에 있어 주고 위로해 주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은혜는 평생 잊을 수 없고, “그 때 그분이 없었다면 나는 대체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살아있거나 하겠는가?”하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즉,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덕분에 제가 있게 되었고 또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귀여워해 주시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은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있고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보시니 좋았다”(창세

1,10,12,18,21,25)고, 특히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보시니 참 좋았다”(창세 1,31)고 말합니다. 착하신 하느님께서 나쁜 것, 못 쓸 것을 하나도 만들지 않으십니다. 심보가 고약한 우리가 하느님께서 만드신 좋은 것들을 나쁜 목적에 쓰거나 망치거나 하는 것이지요. 하찮은 모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원하시기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모기보다 훨씬 귀한 이 ‘나’라는 존재는 어쩌다 보니 우연히 생겨나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하신 좋은 뜻에 따라 생겨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 나를 좋게 보시고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나를 만드셨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라는 말은,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나게 하시고 좋은 것들을 두루 갖추어 주신 아버지,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아버지, 나를 귀엽게 여기시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보아 주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와 찬미입니다. **찬미**



# 안아주세요!



1995년 10월, 미국 메사추세츠 주 한 병원에서 여자아이가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카이리와 브리엘 잭슨 자매. 둘 다 1kg에 불과한, 7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아였습니다. 각각 인큐베이터에서 보호받았는데 빨리 회복되어 건강해진 언니 카이리와는 달리 동생 브리엘은 심장이 약해 점점 건강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브리엘은 회복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둘째 아이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두들 포기하려 했을 때,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간호사가 의

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가망이 없다면 그동안이라도 둘이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는 게 어떨까요?” 1인 인큐베이터라는 병원의 규정을 어기는 일이었지만 엄마 뱃속에 함께 있으면서 많은 것을 공유했을 거란 생각에 엄마의 자궁에서처럼 카이리를 브리엘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언니는 아픈 동생에게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포옹을 해주었고 잠시 후 기적과도 같이 죽어가던 동생의 호흡과 맥박, 혈압이 점차 호전되며 살아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자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던 브리엘은 며칠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되었고 지금도 두 자매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후 쌍둥이 조산아를 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보호하는 코베딩(co-bedding)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모르는 것 태어난 쌍둥이 조산아였지만 사랑으로 포옹해 줄 때,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어떤 의료방법보다 함께한 누군가의 진심어린 마음이 더 큰 치료효과를 발휘하게 된 셈입니다.

지금 누군가 우리의 포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내 양들을 돌보아라”고 하신 말씀처럼 먼저 안아주고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우리의 상처들도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필요**

## 금주의 성인



### 성 다미안 드 베스테르 (4월 15일)

벨기에서 태어나신 다미안 성인께서는 예수와 마리아의 성심수도회에 입회하여 33세에 하와이 선교를 자원하시어 그곳에서 사제가 되시고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된 몰로카이 섬으로 가서 평생토록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 성인께서는 수백 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간호하고, 집을 지어 주시고, 무덤을 만들어 주시며 사랑과 자비로 돌보시다가 당신도 한센병에 걸려 선종하셨다.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들과 버려진 아기들, 억압받는 여성, 차별받는 소수공동체 등 소외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수호자로 선포되신 성인께서는 1995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으로부터 시복되었으며 2009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다.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이들과 버려진 아기들, 억압받는 여성, 차별받는 소수공동체 등 소외당한 모든 이들을 위한 수호자로 선포되신 성인께서는 1995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으로부터 시복되었으며 2009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에 의해 시성되었다.



###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교구 소속 황주철(로제리오, 향년 58세) 신부님께서 2013년 4월 2일(화) 17시 25분에 지병으로 선종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 모화성당 새성전 봉헌식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4월 7일(일) 오후 3시 4대리구 모화성당의 새성전 봉헌식을 주례하셨다.

#### ■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미사



교구장 대주교님께서는 4월 8일(월) 오전 11시 성모당에서 주님탄생예고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옥탑교리방' 개국



가톨릭 청소년 교리서(YOU CAT)를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설하고 토론하는 인터넷 방송(팟캐스트) 프로그램으로, 회당 30분 분량을 연간 20회 송출합니다.

#### 팟캐스트 청취방법(스마트폰, 일반 컴퓨터)

- 아이폰에서 팟캐스트 앱의 스토어 메뉴, 안드로이드폰에서 팟드로이드 앱에서 '옥탑교리방' 검색
- 인터넷 접속 후 아이튠즈 스토어의 팟캐스트 검색 또는 교구 홈페이지 메인 '옥탑교리방' 배너 클릭

#### 대구주보 메일링 서비스 개시

대구주보에서는 여행이나 출장, 군복무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거주지를 떠나 있는 교우들이 E메일을 통해 구독하실 수 있도록 '대구주보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메일링 서비스 신청방법(전화, E메일, 홈페이지)

- 053)250-3047~9 / jubo@dgca.or.kr (신청자 성명, 세례명, 수신 E메일 주소 기재)
- www.daegu-archdiocese.or.kr
- www.daegujubo.or.kr



#### 대구주보 신앙의 해 교리퀴즈 개설

지난주부터 대구주보(3면 하단)에서는 신앙의 해에 가톨릭교회 교리서를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교리퀴즈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응모방법 및 시상 :** 정답을 기재한 후 우편(금요일 도착 분)을 통해 교구 문화홍보실로 보내주시면 매주 정답자를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며, 연말에는 정답을 가장 많이 맞힌 교우들에게 별도의 포상을 합니다.

하느님 백성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박성규 엘리지오



새로 즉위하신 교황님을 위해 많은 기도를



### 제3회 교구민과 함께하는 이주민 미사

일시: 4.28(일) 15:00  
장소: 주교좌계산성당  
집전: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 행사 | 모임

#### 4월 가나강좌 안내

일시: 4.21(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 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 2013 성령강림대축일기념 성령대회

일시: 5.25(토) 10:00~18:00  
장소: 성김대건기념관, 대상: 일반  
강사: 황창연(베네딕도) 신부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 전례꽃꽂이 연구회 월례회

일시: 4.15(월) 14: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네이버: 대구대교구 전례꽃연구회

#### 바뇌성모기도회 18주년 춘계 대피정

일시: 4.25(목) 9:30~16:00, 삼덕성당  
피정·미사 집전: 이상각 신부  
문의: 바뇌의성모기도회 427-7543

### 교육 | 모집

####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4.27(토) 10:00, 남산동대신학원  
주제: 우리 시대에도 덕(德)이  
가능·필요한가? / 5천 원  
강사: 이경수(라파엘)신부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안내

칭찬기술(이수남): 5.6(월) 14:00  
심리상담2급: 5.7(화, 수) 14:00  
사범·제대꽃꽂이: 5.3(금) 11:00  
왕초보·관광영어: 5.3(금) 11:30  
문의: 254-6115

#### 자폐·지적·정서장애 아동 모집

교육: 방과 후 교실, 소보루 교실,  
건강증진교실, 문화여가 토요교실,  
치료: 언어, 미술, 월에치료  
문의: SOS아동복지센터 985-3217

####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기간: 6.15(토)~24(월) 9박 10일  
장소: 이스라엘, 이탈리아 순례(410만 원)  
기간: 6.18(화)~28(금) 10박 11일  
장소: 이스라엘, 요르단 순례(390만 원)  
문의: 428-5004 www.cttour.org

####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교육생 모집

천연비누·화장품, 쿼트, 리본공예,  
POP, 통기타, 우쿨렐레, 바이올린,

오카리나, 플룻, 일본어 회화  
문의: 476-6211

#### 베네딕도 청년성가단 2기 모집

일시: 매주월 19:30, 삼덕성당  
대상: 전례음악과 합창에 관심있는 청년  
문의: 튜핑포교베네딕도수녀원  
김후고 수녀 (010)7151-2004

#### 바오로딸 독서치료영화읽기미디어 교육

주제: 자아성장 신앙성숙 행복프로그램  
행복한 책읽기: 4.29(월) 14:00(10주)  
행복한 영화읽기: 4.30(화) 14:00(8주)  
미디어포럼 영상교육: 매주 목 10:00(7주)  
문의: (010)2658-5185

#### 대가대 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일반 및 특수대학원(경영, 디자인, 신학,  
사회복지, 음악, 국제·다문화, 보건의료)  
접수기간: 4.29(월)~5.10(금)  
문의: 850-3637 / 660-5512(특수)  
<http://www.cu.ac.kr>

### 채용

#### 백합 어린이집 조리사 채용

자격: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256-6862

#### 가톨릭푸름터 취업사관학교 직원모집

자격: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문의: 764-8537

**철목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의/원장 박 규 옥(바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www.gabimaru.co.kr**  
**가비마루 커피**  
김재창(프란치스코) 이정숙(베네딕타)  
특허진공티백 100%원두커피  
본당 수익사업 상담환영  
1588-3646 / 053)584-0404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종문(파비올라)

**서정의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 재활 치료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평일: 09:00~17:30 토요일: 09:00~12:00  
위치: 대곡역사거리-대곡역그린빌 방향 500M

**한습 도시락**  
대구 ☎(053)963-1188  
한익대점 053)817-3114  
오영숙(바울라), 장종미(아베스)  
※단체주문시 대구·경산지역 배달가능  
(휴대용 카드 단말기 결제가능)  
대학생MT, 체육대회, 성지순례, 성당단체  
주문시 「아름의집」에서 기념품 증정  
<http://www.hsd.co.kr>

라식, 백내장 수술 전문안과  
**대구연세안과**  
아이라식, 안내렌즈, 노안수술  
의화박사  
현, 연세대의과수 원장 박종원(소시모)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 626-8881~5

2007 ISO 9001-2000 품질관리 인증업소, 그 명성과 지부심  
엄선된 최상급 식재료와 올리브유, 식물성 기름만을 고집합니다.  
풍격높은 바지나 모임, 각종높은 최고의 상견례 명소  
**자글성**  
대표: 정경숙(스텔라), 황기철(요한)  
예약 (053)767-6700 대구 서구 황금동 LG타워 빌